

## 한국교회의 공공성 위기와 기독교의 사회선교

정원범 (대전신학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기독교의 공공성과 한국교회의 위기의 원인

1. 기독교의 공공성
2.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 공공성 상실

### III. 공공성 상실의 원인

1. 개인주의적 구원이해
2. 이분법적 사고
3. 근본주의
4. 사머니즘과의 결탁
5. 유교문화와의 결탁
6. 경제주의(자본주의)와의 결탁
7. 국가와의 결탁

### IV. 공공성 회복의 대안: 사회선교

1. 사회선교와 관련 개념의 의미
2. 21세기 사회선교의 과제: 생명, 정의, 평화의 선교

### V. 나가는 말

---

• ABSTRACT •

---

## The Crisis of Publicness of The Korean Church and Social Mission of Christianity

Chung, Won-B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risis of publicness of the Korean Church, to suggest social mission as an alternative for recovering publicness of christianity and to suggest life mission, justice mission and peace mission as christian social mission.

All statistics show that the Korean Church is the most distrusted religion among representative religions in Korea. This crisis of public confidence of the Korean Church results from the loss of publicness of christianity. But originally christianity is not a private religion but a public religion. The reason is as follows: ① God of christianity is not a lonely being but public being in community. God is a social, participatory being. ② The world created by God is not a private domain for a certain group or nation but a symbiotic domain for all creatures. ③ All humans were created not as lonely beings but as beings in relationship with God and other creatures. ④ Kingdom of God is not a private character of kingdom which a certain group or nation can monopolize but public character of kingdom which all humans enjoy justice, peace and joy in Holy Spirit. ⑤ Church is not a private being for itself but a public being for common good of society and the world. On the ground of the above statements, christianity is a public religion in which publicness is a key element.

The Korean Church lost publicness. What are the reasons of it? The reasons are as follows: ① Individualistic understanding of salvation ② Dualistic thought which separate soul and body, individual and society, the world beyond and this world and think body, society and this world less importantly than soul, individual and this world ③ fundamentalism ④ collision with shamanism ⑤ collision with confucianism ⑥ collision with economism ⑦ collision with a nation

What is an alternative for recovering of publicness of the Korean Church? First, it is to recover the identity of christianity as a public religion. Second, it is to perform the task of social mission. Here social mission means all activities which churches and christians perform in relation to social responsibility. What are the contents of social mission? Those are life mission, justice mission and peace mission. First, the task of life mission is to build culture of life and ecological community which affirm and respect life, and to resist powers which drive the socially weak and ecosystem to death. Second, the task of justice mission is to criticize all forms of concentration of power by minority, to resist unilateral dominion of a few vested interests and to change unjust political, economical social system into just political, economical social system. Third, the task of peace mission is to oppose violence, war, war weapons and nuclear weapons, to try to solve conflict relations and hostile relations, to curtail aggressive elements which become the cause of war, to get rid of structural violence such as poverty, oppression,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and to build culture of peace in which every people and every nations respect each other.

As Moltmann said, the Korean Church today face double crises. One is the crisis of identity, the other the crisis of relevance. The former is the crisis of recognition, the latter is the crisis of praxis. In terms of these double dimensions, the Korean Church face the loss of publicness. If it is the cause of loss of public confidence of the Korean Church, recovering publicness of the Korean Church is a urgent task in order to recover credibility of the Korean Church. In conclusion, the Korean Church has to perform life mission, justice mission and peace mission as social mission in order to recover publicness of christianity. Because a public character of christianity is most clearly revealed through social mission as a christian response of contemporary political, economical, social problems.

**Key words:** The Crisis of publicness, Social Mission, Life Mission, Justice Mission, Peace Mission

## I.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MBC ‘PD수첩’은 “목사님, 돈을 어디에 쓰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부천처음교회 운영대 목사의 교회현금의 전황과 횡령 문제를 다루었고, 9월 14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거지 목사 행세를 해온 한승주 씨의 이중생활을 폭로했으며, 9월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은성교회 정봉규 목사의 무리한 예배당건축<sup>1)</sup>으로 인해 교회가 파산위기에 몰렸다고 보도했다.<sup>2)</sup> “추락의 가속도는 더해 가는데 날개가 없다. 낙하산도 없다.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는 개신교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와 목사들이 단골로 등장한다. 교회가 죄 많은 세태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다. 신문과 뉴스에 연일 보도되는 교회와 목사의 추문은 더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여론의 한복판에서 한국교회가 벌거벗겨진 채 못매를 맞고 있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구경꾼들의 손에는 돌맹이가 들려 있다.”<sup>3)</sup> 한국교회가 어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해결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필자는 2장에서 기독교의 공적 특성을 규명하면서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3장에서 공공성 상실의 원인을 분석한 후, 4장에서 공공성 회복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선교와 사회선교의 과제로서의 생명, 정의, 평화의 선교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은성교회는 교회적금 20억 원, 건축 및 일반현금 121억 원, 교인 담보대출금 80억 원 등 241억 원으로 580억 예배당을 건축하는 동안 950억 원을 대출받았고, 정봉규목사는 퇴직금으로 30억원을 지급받았다.

2)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5225>

3)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6162>

## II. 기독교의 공공성과 한국교회의 위기의 원인

### 1. 기독교의 공공성

일반적으로 공공성이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독점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특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공공성이란 정치적으로 과거 봉건주의 시대나 절대군주 체제에서 신분적 우선권이나 특권이나 경제적, 시장적 독점을 지양하고 모든 시민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열린 공간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삶의 모델을 의미한다.”<sup>4)</sup>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와 은혜의 혜택은 어느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지닌다. 기독교는 분명히 사적인 종교가 아니라 공적인 종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독교가 공적인 종교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독한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는 공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칼 바르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고독하게 자족적이고 자아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삼위 일체적 본성 안에서 상호관계적인 공동체로 존재하신다.”<sup>5)</sup> 다시 말해 “기독교의 하나님은 홀로 고고하게 자족하는 하나님, 인간의 지배와 독재를 정당화시켜 주는 독재자 하나님, 군주와 같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유일 독재자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사귌)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sup>6)</sup> 요컨대 하나님은 사회적이고 참여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참여적이다.”<sup>7)</sup>

4) 손규태, 『하나님 나라와 공공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58.

5)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II, 402; 김현진 『공동체적 교회회복을 위한 공동체 신학』(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53. 재인용

6) 이신건, 『조직신학입문』(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44.

둘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집단이나 어느 한 국가만을 위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모든 생물, 모든 인종, 모든 국가의 공생을 위한 영역이기 때문이다.<sup>8)</sup>

셋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즉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즉 상호의존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피조물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sup>9)</sup> “성육신한 주님이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과 깊은 연대함 가운데 살았듯이, 또 영원한 하나님의 삶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사랑의 삼위일체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듯이, 인간도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반사하도록 지어진 것이다.”<sup>10)</sup> 다시 말해 “인간됨이란 자유롭게 그리고 기꺼이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sup>11)</sup>

넷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 집단이나 어느 특정 국가가 독점할 수 있는 사적인 성격의 나라가 아니라<sup>12)</sup> 전 세계와 전 인류가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매우 보편적인 공적 성격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교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과 세상의 구원을 위한 공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분회퍼가 말한 대로,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

7) Kenneth Leech, *The Social God*, 신현기 역, 『사회적 하나님』 (서울: 청림출판, 2009), 24.

8) 손규태, 『하나님 나라와 공공성』, 164.

9)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장경철 역, 『기독교 조직신학개론』(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140; Arthur Rich, *Wirtschaftsethik*, 강원돈 역, *경제윤리1*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224.

10)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장경철 역,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184-185.

11)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장경철 역,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184.

12) 손규태, 『하나님 나라와 공공성』, 158.

는 교회이다.”<sup>13)</sup> “교회가 자신의 영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데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종교단체’가 되고 하나님과 세상의 교회이기를 그치게 된다.”<sup>14)</sup>

여섯째로,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즉 공동선 또는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동선이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유익한, 특정하고 일 반적인 상황”(존 롤스)<sup>15)</sup> 또는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으로 하여금 더 완전하고 더 용이하게 자기완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생활상 여러 가지 조건들의 총합”(사목헌장)<sup>16)</sup>이라고 할 수 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행전 4: 32-35)

이처럼 기독교신학의 삼위일체론, 창조론, 하나님형상론, 신국론, 교회론, 기독교윤리학 등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분명히 공공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적 종교임에 틀림없다.

13) ed. John W. de Gruchy, *The Cambridge Companion to Dietrich Bonhoeff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217.

14) Larry L. Rasmussen, *Dietrich Bonhoeffer: Reality and Resistance*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Press, 1972), 21.

15) Jim Wallis, *The Great Awakening*, 배덕만 역,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7가지 방법』(서울: 살림, 2009), 137.

16) 정원범, 『가톨릭사회윤리와 인간존엄성』(서울: 한들출판사, 2002), 101.

## 2.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 공공성 상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는 새삼스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한국교회가 그 위기의 심각성과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단순히 교인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지 않다. 주지하는 대로, 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17.6%였던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로 나타났는데<sup>17)</sup> 신뢰도가 감소한 이유로는 ‘언론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접해서’가 18.6%, ‘언행일치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가 15.6%, ‘교인들의 비윤리적 행동 때문에’가 14.9%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으로는 가톨릭교회가 41.4%, 불교(사찰)가 33.5%, 개신교회가 20%로 나타났고, 응답 내용을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인의 경우 개신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전체 기독교인의 59%이고 불신한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16.8%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개신교인의 경우에는 개신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8.2%이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55.4%로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개신교회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로 전락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공공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했다는 말은 교회나 기독교인들의 삶이 공동선이나 공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말이

17)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0), 11.

18)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17, 34.

다. 최근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공공성 상실의 사례들로는 목사들의 교회공금 유용이나 횡령, 대형교회 담임목사의 전제군주적 전횡, 교회세습, 성직매매, 교회매매, 금권선거, 은퇴목회자의 과도한 퇴직금 논란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는 교회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교회세습이다.<sup>19)</sup> “세습 기법도 갈수록 발전하여, '부자 세습'은 기본이고 서로 교회를 맞바꾸는 '교차 세습'이 있는가 하면, 아예 미리 교회나 법인체를 하나 따로 떼어 주는 '증여 세습'도 추가로 개발되었다. 물론 꼭 아들에게만 세습하는 것은 아니다. 딸이나 사위 그리고 기타 혈족에게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세습을 하고 있다.”<sup>20)</sup>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교회의 세습이다. 대형교회의 세습은 충현교회를 시작으로 광림교회 김선도목사가 아들 김정석목사에게(2001년), 금란교회 김홍도목사가 아들 김정민목사에게(1998년), 임마누엘교회 김국도목사가 아들 김정국목사에게 교회를 세습했다. 이러한 대형교회의 교회세습에 대해 일반인들은 북한 김일성 일가의 세습과 재벌세습과 다른 것이 무어나며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있다.

증여세습의 대표적 사례로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목사 일가의 국민일보 사유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이용필기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21)</sup>

조목사 일가는 지난 20여 년간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설립한 주요기관과 재

19)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에 따르면 61개 교회가 이미 세습을 진행했고, 세습 진행 중으로 의혹이 제기된 교회가 25교회로 나타났다.([http://hsydney.com/?bo\\_table=topic&doc=bbs/board.php&wr\\_id=4215](http://hsydney.com/?bo_table=topic&doc=bbs/board.php&wr_id=4215))

교단별로는 기감 17, 예장합동 17, 예장통합 7, 예성 4, 기침 3, 기성 2, 예장합신 1, 예장고신, 예장백석, 기장, 기하성, 선교단체 등 기타 11곳이다.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4569>)

20)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23>

21)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4632>

단을 두루 장악해 왔다. 조희준씨(장남)는 국민일보 회장과 ‘영상조용기자선 재단’ 대표사무국장 등을, 조민제씨(차남)는 국민일보 사장에 이어 회장을 맡고 있다.... 조목사 일가의 교회 기관과 재단 장악은 범죄로 이어졌다. 장남 조씨의 범죄 경력은 화려하다. 계열사 돈 36억 원을 배임한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1월 18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6월 20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국민일보와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 등을 역임한 조씨는 25억 원의 세금 포탈과 1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의 이력 역시 만만치 않다. 배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는 6월 14일에 열린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세계최대교회를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교회 목사의 일가가 어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이것은 교회의 사유화가 빚어낸 비극적인 결과이다. “한국교회는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는 말이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다. 그야말로 “한국교회가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한국교회의 몰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아무래도 부의 독점적 소유와 배타적 특권을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재벌을 닮은 대형교회들의 세습과 국민일보의 사유화가 그 치명적인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 III. 공공성 상실의 원인

#### 1. 개인주의적 구원이해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서 교회의 공공성을 상실하게 된 것일까? 첫째로,

22)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183>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개인주의적 구원 이해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속죄교리와 칭의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전을 상실했다. 브라이언 맥클라렌이 말한 대로 전통적인 교회에 있어서 복음은 인류 전체와 세상의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단지 개인구원을 위해서만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개인주의적인 이론으로 변질되었다.<sup>23)</sup>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정치, 경제, 사회 현실과 무관한 개인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개인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통전적인 구원의 복음 곧 하나님나라의 복음이며, 현존질서의 유지를 옹호하는 현상 유지의 복음의 아니라 세속적 가치체계와 불의한 사회체제를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사회변혁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2. 이분법적 사고

둘째로,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이분법적 사고 때문이다. 이분법적 사고란 “인간과 세상의 실재를 육체와 영혼, 개인과 사회, 이 세상과 저 세상 등으로 분리시켜 신체, 사회, 이 세상을 영혼, 개인 및 저 세상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sup>24)</sup>을 말한다. 결국 이분법적 사고란 신체적인 것, 사회적인 것의 의미와 중요성,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일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무시한다.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공공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 때문이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영혼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치, 경제, 사회적인 세상의 일에서 탈피할수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23) Brian McLaren, *A Generous Orthodoxy*, 정성목 역, 『기독교를 생각한다』(서울: 청림출판, 2011), 51.

24)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서울: 한울, 1992), 37.

고 생각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영혼과 저 세상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기독교의 공적 특성을 상실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근본주의적인 철저한 이분법외에도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분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주의 진영이 취하는 이분법이다. 그랜드래피즈의 “복음과 사회적인 책임간의 관계에 대한 심의회” 보고서는 이렇게 말한다.<sup>25)</sup>

우리가 육체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 간에 또는 육체 치료와 영혼 구원 간에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은 우리로 이웃을 전인으로서 섬기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인류의 긍정적인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은혜이며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영원한 영적인 구원은 그의 일시적인 물질적인 복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야만 한다.

오랫동안 복음주의 진영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던 이러한 주장에는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사이의 양자택일을 부추기는 잘못된 이분법 논리가 숨겨져 있다. 또한 복음전도가 주된 것이고 사회변화는 복음전도가 가져오는 열매라고 하는 복음주의 진영의 인과율 사고방식 역시 잘못된 이분법 논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사고를 가지고는 기독교 신앙의 공적 특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음이 분명하다.

25)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김병길, 장훈태 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변천』(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600.

### 3. 근본주의

셋째로,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근본주의 때문이다. 근본주의란 자유주의 신학의 역사 비평적 성서주석과 진화론과 같은 현대 과학이론에 대항하여 일어 난 신학사조이고<sup>26)</sup> 그 강조점은 성경의 무오설과 축자영감설,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 등이다. 근본주의는 극단적인 보수 신앙으로 교회의 양적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sup>27)</sup>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근본주의는 현대주의를 배격한다. ② 근본주의는 율법주의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자신만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기의 배타주의에 빠질 수 있다. ③ 근본주의는 종교의 세속화를 반대하고 단일종교의 국가를 지향함으로써 종교제국주의를 만들 수 있다. ④ 근본주의는 세계의 임박한 종말을 고대하면서 세계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거부한다. ⑤ 근본주의는 배타적 전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분열에 앞장 서 왔다. ⑥ 근본주의는 개인구원과 개인윤리에 강조점으로 두다 보니 사회변혁적 책임을 약화시켰다.

한국교회는 바로 이러한 근본주의적 성향으로 인하여 자기우월주의, 권위주의, 배타주의, 교조주의, 호전적 태도 등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많은 신앙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다.<sup>28)</sup>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웃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사회를 위한 공적인 책임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는 바로 이러한 근본주의적 성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26) 목창균, 『현대신학논쟁』(서울: 두란노, 1995), 243-245.

27) 김홍기, 『현대교회 신학운동사』(서울: 한들출판사, 2008), 160-164.

28) 이원규, 『기독교의 위기와 희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211-212.

#### 4. 샤머니즘과의 결탁

넷째로,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샤머니즘문화와의 결탁 때문이다. 샤머니즘이란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한국 백성의 골수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들의 정신과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어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의 기층종교이다.<sup>29)</sup>

샤머니즘문화의 중요한 특징은 기복주의이다. 거의 모든 것은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복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질병 없이 오래 살고 아무 탈 없이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복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무교적 가치관이란 철저히 물질주의적이고 현세 중심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기에는 “초월적 가치의 세계라든가 인간관계에 필요한 사회윤리적 가치의 세계가 결여 되어있다.”<sup>30)</sup>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유, 정의, 사랑, 평화와 같은 하나님나라의 가치들은 외면한 채,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사회윤리의식과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이 그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인 기복사상에 젖어 있는 것은 상당부분 샤머니즘과의 결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1)</sup>

#### 5. 유교문화와의 결탁

다섯째로,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유교문화와의 결탁

29) 문상희, “한국의 샤머니즘,” 분도출판사 편집부 편, 『종교란 무엇인가』(왜관: 분도출판사, 1985), 125-126.

30) 유동식, 『민속종교와 한국문화』(서울: 현대사상사, 1984), 271.

31) 정원범, 『교회, 목회, 윤리』(서울: 한들출판사, 2008), 330.

때문이다. 유교란 중국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우리의 전통사회에 통치원리와 행동규범을 제공해왔던 한국의 전통종교이다.<sup>32)</sup> 유교문화의 가치체계의 특징으로는 인본주의, 권위주의, 가족주의, 체제순응주의, 형식주의 등을 들 수 있다.<sup>33)</sup> ① 인본주의는 인간의 가치, 정신의 가치를 중시하여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강조하는 특성 또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인간적 가치를 더 강조하는 가치지향성을 말한다. ② 권위주의(계급의식)란 인간관계와 사회윤리를 규정하는 유교적 정통사회의 기본 원리가 철저히 상하의 위계적인 서열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③ 가족주의란 일체의 가치가 가족 집단의 유지와 지속 기능과 관련을 맺어 결정되는 사회의 조직형태를 말한다. 즉 가족에 대한 애착 내지 관심이 다른 의욕과 동기를 압도하고 행동의 주도권을 잡는 생활태도이다. 오늘날 한국인의 의식 특성인 연고주의(학연, 지연), 파벌의식과 같은 특수주의적 집단주의 가치관은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④ 체제순응주의는 현실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존 체제에 순응하는 보수적인 삶의 태도를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 면에서 유교문화와 결탁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직분의 계급화와 가족주의적 집단주의화와 체제순응(주의)화이다. ① 직분의 계급화: 본래 교회에서의 직분이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봉사의 직분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의 직분이 서열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② 편협한 가족주의화: 기독교의 구원이해는 개인적인 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사회적인 구원, 온 세계(우주)의 구원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보면, 윤리적 행위의 가치지향성이 여전히 우리 집안, 우리 교회,

32) 금장태, 『유교사상의 문제들』(서울: 여강출판사, 1991), 166.

33) 정원범, 『교회, 목회, 윤리』, 321-322.

우리 교파라고 하는 귀속적 집단의 편협한 이익만을 요구하는 가족주의적 우리주의 의식에 매몰되어 있다. 한국교회의 지역주의, 연고주의, 개교회주의, 교파주의 등의 경향은 바로 이와 같은 유교문화의 가족주의, 즉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편협한 이익만 추구하는 가족주의적 집단주의의 반영이라 아니할 수 없다. ③ 체제순응(주의)화: 예수의 복음은 현존질서의 유지를 옹호하는 현상유지의 복음의 아니라 세속적 가치체계와 불의한 사회체제를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사회변혁의 복음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 내는 기존체제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의에 대해 저항하기보다는 불의한 기득권체제를 옹호하는 현상유지의 종교로 기능하고 있다.

## 6. 경제주의(자본주의)와의 결탁

여섯째로,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경제주의와의 결탁 때문이다. 경제주의란 “경제라는 안경을 끼고 사물을 바라보고 경제라는 잣대를 갖다 대어 모든 것을 평가하고 일상생활을 경제적으로 파악하고 경제로 자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sup>34)</sup> 한국교회가 이러한 경제주의에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박영신교수가 말하는 대로 “경제주의의 추세를 교회가 철저히 반영하고 차라리 그 원리를 후원하고 있었다. 교회마다 물질적 풍요와 여유를 찾기에 급급하고 기독교의 부흥과 영향력을 교회(인)수와 헌금액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모든 것을 물량적으로 측정하였으며 교회 회원의 가정은 물질적 축복을 비는 신앙(?)으로 넘치게 되었다.”<sup>35)</sup> 이렇게 한국교회가 경제주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교회의 사회

34) 박영신, “경제주의와 기독교”, 정훈택 외, 『오늘의 기독교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서울: 대장간, 1991), 92.

35) 박영신 외,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서울: 한들출판사, 2006), 115-116.

를 위한 공적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 7. 국가와의 결탁

일곱째로,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국가(정부)권력과의 결탁 때문이다. 교회가 국가와 너무 밀착되어 있을 때 교회는 사회의 공동선을 제대로 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권력은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기 보다는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국가권력과 밀착되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이승만을 지지했고, 박정희 독재 체제 하에서는 박정희를 지지했으며, 전두환 정권에서는 전두환을, 노태우 때는 노태우를, 김영삼 때는 김영삼을, 그리고 이명박 때는 이명박을 지지했다. 한국교회는 그들이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았든지 아니든지,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이든지 아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다만 그들은 기존질서를 지지했고 사회의 기득권 세력을 지지할 뿐이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여러 가지 사회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지하기보다는 기득권세력을 지지하였고 불의한 사회질서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위협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득권의 현상유지를 언제나 옹호하는 극단적 보수주의의 경향은 자유, 정의, 인권, 평화, 생명존중이라는 기독교의 공공적 가치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 IV. 공공성 회복의 대안: 사회선교

### 1. 사회선교와 관련 개념의 의미

한국교회의 공공성 상실이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긴급한 과제일 것이다. 어떻게 기독교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공공성 회복의 방안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적 종교로서의 기독교 신앙(신학)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 토대 위에서 교회의 사회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선교가 공공성 회복의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회선교가 공동선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사회선교만큼 기독교의 공적 특성을 가시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 1) 사회선교

예장총회 “21세기 교단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사회선교란 교회가 지금 여기 이 세상 속에서 살아 있는 신앙을 사랑의 행동으로 증거하는 행위로서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대사회적 책임 수행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뜻하며 그것은 사회봉사와 사회사업, 사회행동과 사회운동으로 이루어진다.”<sup>36)</sup> 성경적 토대 위에서 다시 말하면 “사회선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힘쓰는 노력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부분적으로나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36) 예장총회, “21세기 교단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 총회사회봉사부 편, 『총회사회선교 정책문서집』(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62.

“그 목적은 처음부터 역사 전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 전 인류에게 드러나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sup>37)</sup> 요컨대 사회선교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교회의 사회봉사를 선교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개념”<sup>38)</sup>이라 하겠다.

## 2) 사회봉사

벤틀란트에 따르면, 사회봉사란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을 위해서 사회 구조의 개선에 참여하며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봉사를 의미한다.<sup>39)</sup> 말하자면 사회봉사는 개인에 대한 구호적, 자선적 봉사(charity service)와 사회개혁을 통한 구조적 봉사(structure service)로 이루어진다. 후자는 다른 말로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헤셀이 말한 대로 “사회적 행동은 공동선을 위해 공동체 또는 사회구조들을 바꾸려는 신중한 그룹적 노력의 한 과정이다.”<sup>40)</sup> 그랜드래피즈 보고서는 보다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것은(사회적 행동)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넘어 경제 제도와 정치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변혁시켜 그 제도가 그들을 빈곤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촉진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며, 사람을 넘어 구조를, 수감자들의 사회복귀를 넘어 감옥 제도의 개혁을, 공장 환경 개선을 넘어 근로자들의

37) 총회사회봉사부 편, 『총회사회선교 정책문서집』, 10.

38) 박종삼,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와 디아코니아신학”,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조직위원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05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서울: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05 추진본부, 2005), 24.

39)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서울: 한울, 1992), 21.

40) Dieter T. Hessel, *A Social Action Primer*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29.

더욱 참여적인 역할을 겨냥한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의 사회봉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인간의 필요를 구제하는 구호적 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치, 경제적 구조를 변혁시키는 사회적 행동까지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 3) 기독교사회운동

기독교사회운동이란 기독교 신앙의 토대 위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사회적 행동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예장총회의 기독교사회운동지침서는 기독교사회운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sup>41)</sup> 첫째로, 기독교사회운동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사회구조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형상성을 회복하는 운동이다. 둘째로, 기독교사회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으로 해방된 기독교인들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하고 모두의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셋째로, 기독교사회운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기독교인들이 부정부패의 사회를 개혁하고 그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운동이다. 넷째로, 기독교사회운동은 청지기인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책임 있게 돌보기 위한 과정이다. 다섯째로, 기독교사회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기독교인들이 국가와 사회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예’와 ‘아니오’를 진단하고 선포하는 과정이다. 여섯째로, 기독교사회운동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삶의 구조

41) 총회사회봉사부 편, 『총회사회선교 정책문서집』, 132-137.

를 하나님의 뜻에 상응한 이타적이고 협력적인 삶의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일곱째로, 기독교사회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고난의 짐이 가벼워진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잘못된 구조와 정책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이웃들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고난을 덜어주는 과정이다. 여덟째로, 기독교사회운동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상응하도록 변혁해가는 과정이다.

## 2. 21세기 사회선교의 과제: 생명, 정의, 평화의 선교

### 1) 생명, 정의, 평화선교의 신학적 근거

기독교의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다.”<sup>42)</sup>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선교는 선교사와 같은 특정한 기독교인들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역이다. 둘째로, 선교는 어떤 사람이 단독적으로 행하는 개인적 활동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협력하며 이루어가는 공동체적 활동이다. 셋째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일하신다. 즉, “하나님의 선교활동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다.”<sup>43)</sup> 이 점에서 “세상을 거부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거부하는 것이다.”<sup>44)</sup> 넷째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선교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역이다. 선교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발전되고 완성된다.”<sup>45)</sup> 다섯째로, 선교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42) Carlos F. Cardoza-Orlandi, *Mission: An Essential Guid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2), 15.

43) Carlos F. Cardoza-Orlandi, *Mission: An Essential Guide*, 48.

44) Carlos F. Cardoza-Orlandi, *Mission: An Essential Guide*, 47.

45) Carlos F. Cardoza-Orlandi, *Mission: An Essential Guide*, 46.

그러면 세상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선교)는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선교는 생명선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므로 모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교는 정의의 선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정의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정의의 하나님 이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사 30:18, 45:21, 창 18:25, 느 9:8, 시 7:9, 89:14, 103:17, 렘 9:24, 단 9:14, 스 3:5, 슥 8:8, 롬 3:26, 9:14, 벰전 2: 23, 계 15:3)<sup>46)</sup> 셋째로, 하나님의 선교는 평화의 선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사역의 핵심도 평화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엡 2: 14-16의 말씀이 보여주듯이 바로 평화사역이었다.<sup>47)</sup>

앞에서 모든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는 생명선교, 정의선교, 평화선교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는 마땅히 생명선교, 정의선교, 평화선교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

## 2) 생명선교

21세기의 세계는 경제적 불의, 생태학적 파괴, 제국의 위협, 종교간, 인종간의 갈등 속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생명 죽음의 세계이다. 21세기 인류는 전례 없는 지구적인 생명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하나는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생태학적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는 빈곤의 위기이다.

울리히 두크로는 아크라신앙고백 문서에 기초하여 생태계 파괴현상에

46) Chris Marshall, *The Little Book of Biblical Justice: A fresh approach to the Bible's teachings on justice* (Intercourse: PA, 2005), 22.

47) 정원범 편저, 『평화운동과 평화선교』(서울: 한들출판사, 2009), 35.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1850년에서 1950년까지는 매년 하나의 동물종이 사라졌고, 1989년경에는 하루에 하나의 동물종이 사라졌으며, 2000년경에는 시간당 하나의 동물종이 사라졌다. 2008년 수치에 따르면, 매 10분마다 하나의 종이 사라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에 따르면, 사라진 종들의 퍼센티지는 50년 이내에 30퍼센트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sup>48)</sup> 이외에도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극심한 기후변화, 지하수와 강과 바다의 오염, 토양의 오염과 사막화현상 등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는 현상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아가페문서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비참함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즉 “오늘날 15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수입으로 살고 있다. 반면 세계 최고 부자 20%가 세계 전체 재화와 서비스의 86%를 소비하고 있다. 최상위 1%의 연간 수입은 최하위 57%의 수입과 맞먹고 24,000명의 사람들이 매일 가난과 영양실조로 죽어간다.”<sup>49)</sup>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지구생태계의 파괴,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의 투입과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한 먹거리의 파괴,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기반의 파괴, 인간을 상품화하는 생명존엄성의 파괴 등 생명파괴의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 최고의 선교과제는 아마도 지구생명공동체의 생명들을 살리고 보존하고 돌보는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만들어가는 생명선교라고 할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선교는 본래 생명의 선교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바로 생명

48) Ulrich Duchrow, “The Challenge of Imperial Globalization to Theological Education: Liberation from Violent, Possessive Individualism towards Life in Relationship,” 박성원 정경호 교수 회갑논문집, 『하나님이 그리는 아름다운 세상』, 50-51.

49) 세계교회협의회, 김승환 역, 『경제세계화와 아가페운동』(원주: 휴과 생기, 2007), 22-23.

이다. “예수가 계신 곳에 생명이 있고 병자들이 치유되며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받고 버림받은 자들이 용납되며 죽음의 마귀들이 추방된다고 공관복음서는 말한다.”<sup>50)</sup>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선교에 참여해야 하는 교회의 생명선교는 두 가지의 과제를 가진다. 첫째는 죽음의 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상처받은 생명들을 위로하고 삶의 용기를 북돋우며,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생명살림의 과제이다. 달리 말해 그것은 생명을 긍정하고 존중하는 생명문화와 생태공동체 건설의 과제이다. 둘째는 지구생태계의 생명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든 세력에게 저항하는 과제이다.

요더가 말한 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과 그 나라에서의 궁극적인 사랑의 승리를 미리 맛보는 곳이다.<sup>51)</sup>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미리 맛본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그 풍성한 생명과 삶을 세상에 증거하고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표지, 즉 새로운 질서가 실현되어가고 있는 종말론적 생명공동체로서 지구생태공동체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인류 사회 속에서 진리와 자유와 사랑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생명공동체의 삶,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sup>52)</sup>

### 3) 정의선교

우리는 엄청난 부와 만연한 빈곤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부유한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하며, 가장 가난

50) J. Moltmann, *Die Quelle des Lebens*, 이신건 역, 『생명의 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34.

51) John Howard Yoder, *The Original Revolution*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71), 29.

5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생명살리기운동10년위원회 편, 『하나님나라와 생명살림』(서울: 장로교출판사, 2005), 27-28.

한 5분의 1은 절망적일 정도로 가난하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5분 1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지구 자원의 3분의 2를 소비한다.”<sup>53)</sup> 오늘의 세계는 다수의 절망적인 빈곤을 대가로 소수가 과도한 풍요를 누리고 있는 불의한 세계이다. 이 불의의 뿌리는 소수의 사람들만 더 부유하게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불의한 경제 질서 곧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이다. 신자유주의 주창자들은 자본 투기, 시장의 자유화와 탈규제화, 공기업과 국가자원의 민영화, 규제 없는 외국자본의 투기와 수입, 통제받지 않는 자본의 자유이동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함으로써 지구생태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유린하고 있다.<sup>54)</sup>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의의 체제 하에서 신음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정의선교를 수행해 오셨다. 출애굽 사건은 바로의 억압과 학정 밑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정의선교를 행하신 정의의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고 시편기자의 증언도 마찬가지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를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출 3: 7-9)

여호와는 ...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53) Ronald J. Sider, *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 한화룡 역,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서울: IVP, 2009), 67.

54) 박성원 정경호 교수 회갑논문집, 『하나님이 그리는 아름다운 세상』(서울: 한들출판사, 2008), 31.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시 146: 6-9)

이처럼 불의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가 정의선교(사역)라고 한다면, 21세기 교회의 선교 역시 정의선교(사역)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정의선교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로, 정의선교는 소수의 손에 의한 모든 형태의 권력 집중을 비판하며 소수 기득권의 일방적인 지배에 저항해야 한다. 아가페문서는 “불의와 파괴의 권세가 복음의 통전성을 위태롭게 할 때 그 권세자들과 제왕적 국가들에게 분명히 ‘아니오’를 말함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5)</sup> 둘째로, 정의선교는 불의한 사회(정치, 경제)체제를 정의로운, 사회(정치, 경제)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 예컨대, 소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유무역(고리대금융)을 가난하고 약한 자(국가)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무역(정의로운 금융)으로 변형시켜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정의선교는 기존의 무역 및 투자협정들이 가난한 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기득권 세력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의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한 원칙과 정책을 마련해가는 일에 투신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의선교는 나눔, 세계적 연대, 인간의 존엄성, 용서,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한 사랑과 돌봄을 중심 가치로 삼는 하나님의 경제 곧 생명의 경제를 회복하고자 한다.<sup>56)</sup>

55) 세계교회협의회, 김승환 역, 『경제세계화와 아가페운동』, 19.

56) 세계교회협의회, 김승환 역, 『경제세계화와 아가페운동』, 97.

#### 4) 평화선교

미국의 도시 시카고에서는 2003년 한 해 동안, 599명이 살해당했는데 이 수는 2003년 한 해 이라크에서 죽은 미군의 수보다 많은 수이다. 2004년 현재 미국에서는 매일 65명이 살해당하고 있으며 6000명이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sup>57)</sup> 오늘날 한국의 폭력적인 상황 즉, 한국의 인권 침해상황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08년 인권보고서는 “시민의 인권이 전반적으로 존중되나, 여성과 장애인, 소수자 집단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고, 강간·가정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면서 특히 국가보안법에 따른 자의적인 체포구금, 정부의 도청에 따른 사생활 침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만연한 불법매춘, 외국여성 인신매매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sup>58)</sup>

이제 우리 시대의 폭력은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현실이 되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크고 작은 폭력과 분쟁과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폭력의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긴급한 선교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선교이다. 이처럼 평화선교는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긴급한 시대적 과제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과제라는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평화는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sup>59)</sup> 여기서 평화선교란 갈등과 분쟁과 폭력의 현실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사역을 말한다. 평화란 폭력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소극적 평화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서의 적극적 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자신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 인간

57) 김동춘,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서울: 창비, 2005), 295.

58) 「한겨레신문」, 2009. 2. 26.

59) Alan Kreider, Eleanor Kreider and Paulus Widjaja, *A Culture of Peace: God's Vision for the Church* (Intercourse, PA: Good Books, 2005), 18.

과 자연과의 관계 등 인간의 총체적 차원에 있어서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sup>60)</sup>

그러면 평화선교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로, 평화선교는 전쟁이나 폭력을 반대해야 할뿐 아니라 전쟁준비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반대해야 한다. 둘째로, 평화선교는 폭력이나 전쟁의 원인이 되는 갈등관계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평화선교는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서로 존중하는 평화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평화의 문화는 비폭력과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 이해와 관용과 연대, 정보의 공유와 자유로운 교류,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역량 강화에 기반한 공통의 가치와 태도, 행위와 삶의 양식을 의미하는 일종의 변화하는 동체인 것이다. 평화의 문화는 다양성에서 비롯된 갈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비폭력적 해결을 요구하며 폭력적 경쟁으로부터 공통의 목표를 향한 협력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sup>61)</sup> 넷째로, 평화선교는 분쟁지역이나 폭력이 만연한 지역에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갈등해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로, 평화선교는 빈곤, 억압, 차별, 소외 등과 같은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인권운동, 정의운동, 민주화운동과 같은 넓은 의미의 평화운동에 참여해야 한다.<sup>62)</sup>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평화선교의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sup>63)</sup> 평화선교를 보다 잘 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기도의 과제이다. 평화선교는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평화선교는 기도의 삶을 요구

60) 정원범, 『평화운동과 평화선교』(서울: 한들출판사, 2009), 34-36.

61)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세계화시대의 국제이해교육』(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32.

62) 정원범, 『평화운동과 평화선교』, 38-39.

63) 정원범, 『평화운동과 평화선교』, 43-48.

한다.<sup>64)</sup> “기도는 모든 평화 만들기의 시작이자 끝이요, 근원이자 결실이며 핵심이자 내용물이고 기초이자 목표이다.”<sup>65)</sup> 둘째로, 사랑의 과제이다. 평화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셋째로,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과의 연대성의 과제이다. 평화선교는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과의 연대가 없이는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 넷째로, 폭력과 불의에 대한 저항의 과제이다. 진정한 평화란 정의의 결과이므로 불의에 대한 저항이 없이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섯째로, 공동체조성의 과제이다. 평화선교는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없이는 전쟁과 폭력의 세력에 저항하는 일에 꾸준히 투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 V. 나가는 말

몰트만은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적 실존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이중의 위기 곧 상관성의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에 처하여 있다고 하였다. 한국교회가 정말 그런 것 같다. 한국교회는 사사로운 이익집단으로 전락함으로써 공적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정체성도 상실하였고, 생명위기 시대에 적합한 사회선교적 사명의 수행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상관성도 상실하고 말았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 이중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체성의 위기를 인식의 위기라고 한다면 상관성의 위기는 실천의 위기이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한국교회는 이 이중의 차원에서 심각한 공공성 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공공성 상실이 한국교회 신뢰

64) John Dear, *Disarming the Heart: Toward a Vow of Nonviolence* (Scottsdale, Pennsylvania: Herald Press, 1993), 53, 97.

65) Henri Nouwen, *The Road To Peace*, ed., John Dear, 조세종 역, 『평화에 이르는 길』, 53.

도 추락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한다면, 한국교회 위기의 극복을 위해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만큼 긴급한 과제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공공성의 회복을 위해 공적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생명위기의 시대에 맡겨진 교회의 사회선교적 사명, 곧 생명선교, 정의선교, 평화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금장태. 『유교사상의 문제들』. 서울: 여강출판사, 1991.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조직위원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05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05 추진본부, 2005.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0.
- 김동춘.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서울: 창비, 2005, 295.
- 김현진. 『공동체적 교회회복을 위한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 김홍기. 『현대교회 신학운동사』. 서울: 한들출판사, 2008.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생명살리기운동10년위원회 편. 『하나님나라와 생명살림』. 서울: 장로교출판사, 2005.
- 목창균. 『현대신학논쟁』. 서울: 두란노, 1995.
- 박영신 외.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6.
- 분도출판사 편집부 편. 『종교란 무엇인가』. 왜관: 분도출판사, 1985.
- 손규태. 『하나님 나라와 공공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세계화시대의 국제이해교육』.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유동식. 『민속종교와 한국문화』. 서울: 현대사상사, 1984.
-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 이신건. 『조직신학입문』.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 이원규. 『기독교의 위기와 희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정원범. 『기독교사회윤리와 인간존엄성』. 서울: 한들출판사, 2002.
- 정원범. 『교회, 목회, 윤리』. 서울: 한들출판사, 2008.
- 정원범. 『평화운동과 평화선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9.
- 정훈택 외. 『오늘의 기독교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서울: 대장간, 1991.
- 총회사회봉사부 편. 『총회사회선교 정책문서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김병길, 장훈태 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변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Cardoza-Orlandi, Carlos F. *Mission: An Essential Guid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2.

Dear, John. *Disarming the Heart: Toward a Vow of Nonviolence*. Scottsdale, Pennsylvania: Herald Press, 1993.

Duchrow, Ulrich "The Challenge of Imperial Globalization to Theological Education: Liberation from Violent, Possessive Individualism towards Life in Relationship," 박성원 정경호 교수 회갑논문집, 『하나님이 그리는 아름다운 세상』. 서울: 한들출판사, 2008.

Gruchy, John W. de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Dietrich Bonhoeff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Hessel, Dieter T. *A Social Action Primer*.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Kreider, Alan, Kreider, Eleanor and Widjaja, Paulus. *A Culture of Peace: God's Vision for the Church* Intercourse, PA: Good Books, 2005.

Leech, Kenneth *The Social God*, 신현기 역, 『사회적 하나님』. 서울: 청림출판, 2009.

Marshall, Chris *The Little Book of Biblical Justice: A fresh approach to the Bible's teachings on justice*. Intercourse: PA, 2005.

McLaren, Brian, *A Generous Orthodoxy*, 정성목 역, 『기독교를 생각한다』. 서울: 청림출판, 2011.

Migliore, Daniel L.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장경철 역,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Moltmann, J. *Die Quelle des Lebens*. 이신진 역, 『생명의 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Nouwen, Henri *The Road To Peace*, ed., John Dear. 조세중 역, 『평화에 이르는 길』.

Rich, Arthur *Wirtschaftsethik*, 강원돈 역, 『경제윤리1』.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Rasmussen, Larry L. *Dietrich Bonhoeffer: Reality and Resistance*.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Press, 1972.

Sider, Ronald J. *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 한화룡 역, 『가난한 시대

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서울: IVP, 2009.

Wallis, Jim. *The Great Awakening*, 배덕만 역,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7가지 방법』. 서울: 살림, 2009.

WCC. 김승환 역, 『경제세계화와 아가페운동』. 원주: 흙과 생기, 2007.

Yoder, John. Howard *The Original Revolution*.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71.

「한겨레신문」, 2009. 2. 26.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5225>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6162>

[http://hsydney.com/?bo\\_table=topic&doc=bbs/board.php&wr\\_id=4215](http://hsydney.com/?bo_table=topic&doc=bbs/board.php&wr_id=4215)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4569>)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23>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4632>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183>

논문투고일: 2013. 10. 31.

심사개시일: 2013. 11. 13.

게재확정일: 2013. 12. 13.

---

• 국 문 초 록 •

---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교회의 공공성 위기를 분석하고, 공공성 회복의 대안으로서 사회선교를 제시하며 그 사회선교의 내용으로서 생명선교, 정의선교, 평화선교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신뢰성 위기는 한국교회의 공공성 상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본 논문은 2장에서 삼위일체론, 창조론, 인간론, 신국론, 교회론 등에 근거하여 기독교는 본래 공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제시하였고, 3장에서는 그러나 어떻게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그 원인으로 구원에 대한 개인주의적 이해, 이분법적 사고, 근본주의, 샤머니즘과의 결탁, 유교문화와의 결탁, 경제주의와의 결탁, 국가와의 결탁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기독교의 공공성은 사회선교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공공성 회복의 대안으로서 사회선교를 제시하였고 그 내용으로 생명선교, 정의선교, 평화선교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공공성 위기, 사회선교, 생명선교, 정의선교, 평화선교

---